

음식은 늘 우리에게 유혹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제1차 유혹받으셨던 부분도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생존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므로 가장 큰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탐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음미하거나 감사할 틈도 없이 너무 빨리 먹어 치우는 속식, 과도한 욕심이나 집착으로 게걸스럽게 먹는 폭식, 까다롭게 먹는 미식,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등 음식에 의한 즐거움에 끌려다니는 것이 탐식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정치, 경제적 지위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 음식이 차려진 식탁은 각종 교제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탐식은 본능을 자극하고,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게 만듭니다(갈 5:17). 사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시도록 유혹했습니다. 유혹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친 직후, 곧 본능을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기 위해 행하신 경건의 훈련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훈련과 유혹은 맞닿아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허점을 공략합니다. 탐식은 인간의 본능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나 엘리야의 아들들은 모두 자신이 먹어야 할 것 이상을 탐내는 죄에 빠졌습니다(창 3:6; 삼상 2:12-29). 탐식은 결국 영적 타락을 불러옵니다.

탐식은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고전 6:12).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므로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먹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탐식은 다른 죄들로 연결됩니다.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으로 인해 뻔치게 되는 욕망이 문제입니다(고전 8장). ‘음식’을 매개로 방탕, 타락, 쾌락 등의 감각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술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망가지는 것이 문제입니다(엡 5:18).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여 음식의 정도와 먹는 장소를 선택하고 절제할 만큼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음식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 ① ‘음식’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의 영과 육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 ② 내가 절제하거나 끊어야 할 ‘음식’ 관련 습관/죄는 무엇입니까?